

주현절 후 일곱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7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2년 2월 2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6장 “내 주는 살아 계시고” (새 17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8 번 시편(Psalm) 19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Matthew) 5:5	염신철 집사
찬 양 Anthem	“샘물과 같은 보혈”	찬양대
설 교 Sermon	“좋은 믿음” (Good Faith)	조문길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은혜 아니면”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16 장 “맘 가난한 사람” (새 42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조문길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보면서, 두감각해진 우리의 무지함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죄와 비난이 앞서는 우리의 위선과,
회개를 논하면서도, 좀처럼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맛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퍹하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자칫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95: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한글개역 **마5:5**)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NIV **Matthew 5: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20 (주일)	2/21 (월)	2/22 (화)	2/23 (수)	2/24 (목)	2/25 (금)	2/26 (토)
	출3	출4	출5	출6	출7	출8	출9
본문	눅6	눅7	눅8	눅9	눅10	눅11	눅12
	욘20	욘21	욘22	욘23	욘24	욘25,26	욘27
	고전7	고전8	고전9	고전10	고전11	고전12	고전13

수/요/ 성/경/공/부

수요 성경공부 (2/23 오후7:30)

토요 새벽기도회 (2/26 오전6:30)

토/요/ 새/벽/기/도/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삿13:1-18)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시70:1-5)

지난 주일(2/13) 말씀

하나님나라 살아내기(6)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막 5:25-34)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는 (단지) 자신의 질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막 5:34)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무엇을 성취하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를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 곧 (우리) 믿음의 수준을 판가름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